

제431회 국회
(임시회)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을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1월27일(화)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청문회 증인 고발의 건
2.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상정된 안건

1. 청문회 증인 고발의 건 13
2.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 13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5차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비는 의미로 다 함께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12월 22일 구성이 된 이후에 각각 한 차례의 기관보고와 무안공항 참사 현장조사 그리고 청문회를 차례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진행 과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한편, 향후 다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무엇보다도 깊은 상실과 아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적 의혹 해소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을 위해 헌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청문회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 우리 특별위원회의 그간 활동을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만 먼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회의 때 유가족 대표께서, 김유진 대표께서 눈물로 호소를 하시면서 우리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해 주십사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당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정확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유가족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여야 간에 협의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의견을 좀 기탄없이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양수**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지금 그와 관련해서는 기타 의견에 속하지 않습니까? 일단 안전은 안전대로 처리를 한 이후에 기타 안전에 대해서는 기타 안전으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수** 그러면 제가 미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양당 간사님들에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간 연장의 건과 그다음에 이전에 우리 여야 합의로 국토부 사실조사를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25일까지 사실조사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회가 그 사실조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 위원회를 끝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건을 논의를 해야 오늘 결과보고서…… 증인 고발의 건은 처리할 수가 있는데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먼저 논의를 하고 그리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는 게 순서에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국정조사특위의 기간이 40일입니다. 1월 30일까지인데 이 40일 동안의 조사 범위를 보면 크게 여섯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게 참사의 실체적 원인과 책임 규명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질의응답을 했지만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참사인데 참여한 증인들의 태도를 봐도 이에 대해서 제대로 소통조차 되지 않았던 측면이 많았고 그래서 오히려 유족들의 분노를 더 자극시킨 그런 측면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청문회 때 유족 대표께서 우리 특위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때 며칠 전에 유족 대표께서 요구한 연장의 필요성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의사가 변경됐는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때 특별수사단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경찰청장직무대행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고 행안부장관께서도 가능한 범위에서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듣기로는 구성을 하기로 했다 그다음에 단장에 대해서 유족들의 이견이 있어서 그 부

분이 또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유족 대표단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리고 최소한 저는 특별수사단이 구성이 됐다면 한 달이면, 기존 수사 결과를 토대로 신속히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한 기일은 더 연장을 해서 그 결과를 한번 받아 보는 것이 그나마 이 사건의 실체적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해야만 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나서도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대로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규명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끝내기에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제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는 한 번이라도 연장을 해서 특수단의 활동 결과라도 좀 보고 미진한 부분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그런 기회라도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수 예.

○전진숙 위원 전진숙입니다.

지난번에 국정조사 청문회 하고 나서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두 간사가 합의를 하는 것으로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이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이 각자 다 개별 의견을 여기서 밝히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건지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위원장 이양수 아닙니다.

○전진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두 간사가 합의를 했거나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 두 간사가 먼저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회의를 계속 진행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수 위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셔서 의사진행발언하실 분만 하시는 거고 전원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양당 간사님들께서 그러면 상황을, 각 당의 입장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것을 듣고 유족 입장 듣고 그러고 나서 의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일이 다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김은혜 간사님부터 하시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김은혜 간사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국정조사를 진행하던 지난 22일에 국토부장관이 국토부 자체적으로 사실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유가족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시한이 어제였는데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각까지 유족도 국회도 국토부의 자체 사실조사에 대한 결과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국정조사 기간을 통틀어서 1년 동안 침묵 속에 잠겨 있었던 무안 사고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국민들 앞에서 국정조사를 연장해서 특별수사본부의 설치 및 수사 진행 상황 그리고 국토부의 자체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하고 검증하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한 침묵 속에 다시 무안 사고가 잠길까 우려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같은 사안은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 사이에서 함께 공유가 됐고 이에 따라서 지난 유족 대표의 눈물 어린 호소 속에 국정조사 연장에 대한 부분을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토부에서, 아마 위원장님께서 출석을 통보하셨는데 국토부장관은 이 자리에 지금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조사 결과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공유토록 또 보고토록 했으나 지금 유족들이 저 뒤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공석인, 국토부장관의 부재는 유감입니다. 저는 이같이 국민들 속에, 국민들의 눈과 귀 안에 무안이 계속 자리잡고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다시 한번 회의를 열어서라도 국토부의 사실조사 결과를 저희가 통보받고 보고받아야 하며 국정조사가 지금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관심과 또 국민들이 보고 계신 무안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보고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양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염태영 간사님.

○염태영 위원 이번 국정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유념한 것은 지난 1년간 어떠한 공식적인 수사 진행에 대한 발표도 또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이런 상황에서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여야 위원님들께서 한 달 10일가량 정말 열심히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국토부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항철위 조사의 어떠한 참견도 또 참여도,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장관께서 자체조사는 여야가 합의하면 하겠다고 그랬고 저희는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체조사를 하는 것에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바로 안 되면서 수사 대상·범위 이것에 대해서 지난 청문회 날 22일에야 협의가 됐고 그리고 안이 들어왔던 25일까지 자체조사를 종료하기로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시간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국토부가 자체조사한 것 전체를 책임성 있게 발표하기는 쉽지 않고 그것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사 보고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정을 정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정하는데 30일까지 전체 일정이 나오지 않아도 그 결과는 위원 개별적으로 다 조사 보고를 해 주기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모았고요.

또 하나는 국토부가 자체조사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보고를 받게 되는데 그 보고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정조사 운영 일정안이 처음부터 박아 놓은 게 아니어서 새로운 일정을 전체가 모여서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적인 현재 모든 위원들의 조건입니다.

또 하나는 국정조사 운영 일정과 관련해서 처음에 우리가 12월 23일 날 국정조사 운영 일정을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40일간 하고 22일 날 청문회를 하고 27일 날 오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한 것이 지금까지의 의사일정입니다. 그에 대해서 변경을 하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이 결정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상당 부분이 원내지도부가 결정해서 우리한테 위임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일정을 이렇게 정리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국정조사하고 관련된 추가적인 일정을 연장한다 하는 것은 저희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건 아

니고요.

대신 저희가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수사 내용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고 조사 내용도 의혹이 되는 것이 너무 많았는데 이번에 국정조사 과정 중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드러나서 다행스럽게도 지난 15일 날 항철위가 국토 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돼서 그 안에서 항철위의 위상과 또 전문성 그리고 이후의 책임성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기로 한 법이 통과됐고 그것을 앞으로도 정무위에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보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실질적인 수사가 전남경찰청에서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그동안 국정조사 과정 중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유족들의 그러한 뜻이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밝혀진 것들이 많아서 우리는 여야 위원들이 정말 협심해서 이렇게 수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으로 특별수사본부 이런 것을 요청을 했고 그것을 정부가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단장이 발표되고 앞으로 내일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정조사를 또 연장시켜서 하면 이것이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는 역할보다도 본격적인 수사를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일에 방해를 놓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연장이라든지 추가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면 여야 지도부가 별도로 협의해서라도 그것은 결정하면 모르지만 지금 우리로서는 국정조사 운영 일정 관련된 모든 절차를 제대로 다 지켜 온 마당에 최종적으로 이 안에서, 내일부터 바로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연장 운운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해 버리면 정말 우리 자체가 발목을 잡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얘기가, 마무리되면서 혹시라도 유족들의 마음을 한 번 더 헤집어 놓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반드시 오늘은 이 국정조사보고서를 채택하고 그 이후에 우려되는 상황은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 그리고 국회의 기능 중에서 문제 해결을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양수** 혹시 김유진 유족 대표님 나와 계시면 기간 연장에 관한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진 발언대에서 — 먼저 진심으로 유가족의 아픔을 나누고 위원님들께서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정무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국회에서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 참사가 진상규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책임져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책임지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국회에서 책임 있는 논의를 중요시드립니다. 저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은 이에 대한 모든 것들은 국회의 결정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양수** 유가족 대표께서 국회의 결정에 따른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연희 위원 (손을 들)

○위원장 **이양수** 예.

○이연희 위원 유족분들의 마음을 이루 해야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번에 무안공항 참사는 1년 동안 특위 활동을 했고 40일 기간에 걸쳐서 국정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유가족께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특별수사본부 설치와 전면 재수사 그리고 핵심 책임자에 대한 신속한 강제수사의 착수 그리고 항철위의 재구성 과 조사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결과보고서가 채택이 돼서 통과가 돼야 구속력 있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회의를 통과해서 각 기관별로 여기 결과보고서에 채택돼 있는 부분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먼저 이것을 채택해서 본회의 통과시키는 게 가장 급한 과제이고요.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경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를 해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철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국무총리실로 이관이 돼서 재구성해서 다시 조사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조사 관련 미흡한 부분들도 각 기관별로 다 이행할 것들을, 요구를 다 담아 냈거든요. 그래서 연장하는 것의 의미보다는 이것을 빨리 통과시켜서 이대로 각 기관에서 이행하게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을,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수사 결과든 조사 결과든 나오면 그것은……

국회에는 상임위 제도가 있거든요. 상임위는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있고 행정안전부가 있고 국무총리실은 정무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연장하는 부분의 실효성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크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는 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게 제일 급한 과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양수 예.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저는 좀 궁금한 게 오늘 저희가 이 국정조사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수사가 시작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혹시 위원장님, 누가 답을……

○김미애 위원 그거랑 상관이 없지요.

○이연희 위원 구속력이 없는 거지요.

○이광희 위원 강제력이 없으니까.

○김미애 위원 그렇다고 해서 소홀히 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어불성설……

○위원장 이양수 서로 본인들 의견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김소희 위원 저는 그 부분을 먼저 확인드리고 싶고 어쨌든 유족들의 의견에 맞춰서 저희는 따를 예정이었는데 유가족께서 여야 합의를 거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셔서 지금은 여야 위원들 간에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야당 간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는 어쨌든 이번 22일 날 국정조사랑 그 전에 현장조사를 거쳤을 때 사고조사위나 수사본부의 부실함에 너무 놀랐지만 어쨌든 국정조사의 결과를 굳이 찾는다면 우리가 다시 재조사를 해야겠구나, 우리가 다시 수사를 제대로 해야겠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동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항철위가 국조위로 넘어간 이 시점에서 어떻게 조사위가 잘 꾸려졌는지 어떤 자문위원들로 구성이 됐는지, 저희가 지적한 부분들이 잘 반영된 것을, 누가 제삼자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 주셨지만 상임위에서 한다?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국조특위가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약 한 달 정도 후에 조사위가 어떻게 꾸려졌고 어떤 사람이 참여해서 어떤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 정도는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사본부 역시 어떤 사람들이 참여해서 지금까지 어떤 수사를 했고 누구를 대상으로 수사를 했는지 우리가 국정조사에서 요청한 내용들이 반영이 잘 됐는지 그것은 한 달 정도 뒤에는 그 정도는 국회가 짚어 주고 의견을 한 번 정도 더 내는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유족들도 저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차원에서 연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여당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연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윤종오 위원** 저도 잠깐……

○**위원장 이양수** 예.

○**윤종오 위원** 오늘 또 유족 대표께서 국회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마치 여기서 연장을 하면 엄청나게 유족을 위하는 것 같고 또 그렇지 않다면 유족의 바람을 버리는 것 같고 이렇게 비쳐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조금 협의할 수 있도록 비공개로 진행해서 우리가 정리되고 나면 그 정리된 내용을 유족들한테 알려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공개된 자리에서 이렇게 공방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 찬반 토론이잖아요, 사실 유족들 모셔 놓고.

○**위원장 이양수** 사실은 기간 연장에 관한 것은 우리 유족 대표께서 지난 회의 때 눈물로 호소를 하셨던 부분인데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유족분들에게 확인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이제 사실 양쪽의 의견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발언은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유족 대표께서 국회에 결정을 맡기고 그것에 따르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유족분들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방청석에서 — 「예」 하는 이 있음)

혹시 다른 의견 계신 분들은 안 계시는 거지요?

(방청석에서 —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알겠습니다. 유족분들의 뜻을 잘 알겠고.

저희 위원회는 사실 뭐 이것은 정쟁도 아니고 누가 잘했다, 못했다 그런 게 아니고 유족분들의 뜻을 대신해서 저희 위원회를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당 간사 간에 협의하시고 그 협의 결과는 유족분들의 뜻에, 유족분들이 따른다고 그러니까 두 분이 결정하시면 그것이 우리 위원회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찬성하시면 하시는 거고, 한쪽에서라도 반대하시면 기간 연장은 안 되시는 거고 그것은 이 회의가 끝난 뒤에 양당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하시면 어떨까요?

간사님 하세요.

○**염태영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양당 간에 의견 다 나왔고요. 그냥 이 자리에서 결정하고 바로 다음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양수** 그러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염태영 위원** 아니, 지금 양당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원래대로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이양수** 이쪽은 지금 하자는 거고.

○**염태영 위원** 예, 저희로서는……

○**위원장 이양수** 공식적으로 얘기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비공식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속기록에 남기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기간 연장은 끝나시고 나서 양당 간사 간에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토부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양당 간사 간 협의해 본 적이 없어요. 했어요?

○**김은혜 위원**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양수** 양당 간사와 위원장이 합의하면 국토부장관이 조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합의를 해서 조사했는데 최소한 우리가 그 결과를, 최종 결과가 아니더라도 중간 결과라도 받고 해야지 개별적으로 받는 것은 너무 구속력이 떨어진다, 국토부한테 너무 큰 자율권을 주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보고 일정은 한번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분은 그러면 그것도 합의를 못 이루신 건가요?

○**김은혜 위원** 예, 잠깐 찝막……

○**위원장 이양수** 아니, 잠깐만요.

두 분이 아직 합의 못 이루신 거예요?

○**김은혜 위원** 예.

○**위원장 이양수**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진숙 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결정하시기 전에 질의 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이양수** 예.

○**전진숙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국토부의 보고를 언제, 어떻게 받겠느냐를 한 번 정도 받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기본은 국정감사를 연장한다고 하는 전제를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수** 연장은 안 하시는 걸로 지금 협의하실 거고, 연장이 안 된다면 31일까지 우리가 저거니까……

○**전진숙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양수** 31일까지니까 29일이나 30일 날 회의를 한 번 열어서, 사실 25일까지 국토부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25일 이후에는 보고 상황이 될 줄 알고 제가 오늘 국토부더러 나와서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준비가 안 됐대요. 그래서 29일이나 30일쯤에 와서 보고를 해라, 그렇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염태영 간사님.

○**염태영 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은 국토부가 그동안 불신을 받아서 자체 조사도

하지 않았었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하면 조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조사에 대해서는 합의했고 그런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략 합의를 해서 지난 번에 알려줬고요. 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거나 이런 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사의 내용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25일 날—어제가 25일이 지요—어제까지 보고를 해 준다는 약속을 한 건 없었습니다, 처음에 안이 그렇게 들어왔었는데.

그리고 저희로서는 그 내용이 일단 이번에 조사보고서에, 결과보고서에 들어갈 때 국토부가 그때까지 된 것 있으면 같이 첨부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해 줄 수 있는 일정은 전체가 일정이 안 나오면 개별적으로라도 다 보고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유족들에게 다 공유를 해서 문제 제기되거나 더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 이후에도 개선으로써 갖고 가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해도 날짜를 잡는 것은, 전체 일정을 처음부터 설정한 게 아니어서, 새로 잡기가 어려워서 보고서로 받고 그것에 대해서 개별 보고를 받고 내용도 결과보고서에 넣기로 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은 유족들에게 다 공유하고 이렇게 하기로 하면 결과적으로 같은데 굳이 지금 여기서 날짜를 잡는 문제를 갖고 협의를 하다가 결국은 유야무야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날짜가 나오지 않는 걸 갖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서 실제적인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하면 되지, 형식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무리한 일을 할 수는 없다 하는 뜻입니다.

○**김은혜 위원** 일정 관련해서는 제가 추가로 설명을……

○**위원장 이양수** 김은혜 간사님.

○**김은혜 위원** 저희가 유족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길은 없는데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여야 위원님들이 국정조사특위에 임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가 지난 여야 간사 간 그리고 위원장까지 합의에 따라 실시토록 추진이 된 자체 조사 계획을 저희에게 제출한 바에 따르면 25일까지 7일간 항공정책실장, 항공정책과장 및 소관 부서장을 통해 조사단을 구성하며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사항 중에 정부, 공항 공사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시설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방법을 자체조사 및 제출로 하여 공문 접수 후 즉시 착수된 이 조사는 26일 초안을 마련한 뒤 27일 최종 보고를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엄중한 국정조사 회의에서도 국토부장관의 부재와 함께 보고서가 계획에 따라 제출되지 않았을 정도면 다음에 회의 없이 이대로 개별 통보로 어떻게 정부가 임할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저희 당 위원님들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추가 회의를 통해서 국토부가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국정조사가 끝나면 다시 원복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시기만 지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양수** 최혁진 위원님.

○**최혁진 위원** 지금 국토부의 보고서를 이 자리에 다 모여서 직접 봤느냐 안 봤느냐는 사실 이 보고의 쟁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추가로 많이 밝혀냈고 또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

다 보니까 그 사건의 실체까지 접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특수본이 출범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제기한 의혹들의 실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이나 각종 수사기법을 동원해서 권한을 가지고 수사가 직접 진행이 될 텐데요. 아까 염태영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 보고서가 우리 결과보고서에 첨부된다고 하는 것은 국토부가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진술했을 경우에 그 법적 책임들이 가중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그 보고서를 첨부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토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대하게 이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에 하나 그 보고서에서 사실관계가 아닌 것들을, 이 사건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서 했던 것이 경찰의 수사기관에서 발견되게 되면 보고서를 그렇게 쓴 것으로 인해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보고서 자체를 여기서 전체가 받느냐 또는 개별적으로 받느냐, 저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가 보낸 결과보고서를 첨부해서 이것이 수사기관으로 전달이 되고, 사건의 수사에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이 된다고 하는 측면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국정조사의 무게라든가 깊이, 이런 것들의 경중을 따지는 자리가 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양당 간사님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첨부된다고 하는 것만 저는 명확해지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유족들에게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공유해서 유족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것들까지도 결과보고서에 반영하겠다는 것만 되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양수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가지신 분 안 계십니까?

서천호 위원님.

○서천호 위원 우선 국토부 사실조사 보고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지난번 청문회 과정에서 양당 간사 합의로 사실 조사해서 보고하겠다고 언급이 된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특정 조사위원 누구한테 보고를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국조특위 전체 이름으로 나간 공문이고 또 의사 표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 그러면 왜 부족했는지 하는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문제, 수사적인 문제 이렇게 혼재돼 있기 때문에 수사적인 문제는 건드릴 수가 없다, 나중에 또 혼선을 빚는다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냥 이걸 무시하고 넘어간다, 사실은 우리 국정조사특위 전체를 폄하하는 행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위 국정조사특위 형해화 문제도 있지만 국민에게 공개해야 될 의무도 있고 유족들에게도 반드시 있는 그대로 알려야 될 의무가 국토부에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기로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개별 보고가 아니라 우리 국조특위 전체 이름으로 나간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보고가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됐다고 하시기 때문에 추가로 좀 첨언을 하자

면 지금 우리 수사단 관련해서 특별수사단이 설치됐기 때문에 나중에 수사 결과만 보면 되지 않느냐, 또 우리가 특위에서 나서서 수사 방해, 시간을 뺏으면 되겠냐 하는 그런 인식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 사건 발생했을 때 수사를 안 한 게 아니라 또 수사본부가 구성이 돼서 1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의 1년이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 또 유족 측에서도 수사의 미진, 잘못, 부실에 대해서 다 질타를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중간에 점검하는 과정이 생략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수사단이 발족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특별수사단이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고, 어떤 대상을 포함시키고 있는지 특히 우리 국조특위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수사를 하고 있는지, 수사를 방해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진행 과정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일정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조치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희 위원 의사진행……

○위원장 이양수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이번에 이런 12·29 참사가 난 이후에 저는 유가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만드는 특위에도 참석하고 이 국정조사특위에도 연이어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대형 참사 이후에 특별법을 가장 빠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항철위를 국무조정실로 옮기는 이런 일도 여야 위원들이 내 마음, 내 가족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지난번에 국정조사특위를 마칠 때 우리 유가족들께서 국정조사 연장 안 해 주면 안 내려가겠다고 울부짖으시면서 저를 안고 막 얘기하실 때 사실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는데 뭘 이렇게 계속 요구하시나, 당일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전남경찰청장에게 수사 미진을 강력하게 추궁하면서 특별수사본부를 중앙국수본 산하에 뒀다 하고 가장 강력하게 얘기했던 위원으로서 지난 1월 26일 날 경찰청에 48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이 운영될 거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제기된 게 로컬라이저 설치나 유지·개량의 책임, 조류 충돌 예방활동 미비, 조류 및 비행사고를 통제하는 관제사 업무 문제 등 이 모든 문제들을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지만 행정안전위원회는 여러 부서가 있고 또 경찰청에도 현안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저희들은 비행기 모양부터 공부해서 40일 동안, 그동안 또 저는 그전의 특위부터 쭉 폴로업 하던 분들하고…… 또 상임위, 정무위나 행안위에서 챙기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의 의견이 어떻게 바뀌신지는 모르지만 전체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씬표를 찍고 가는 느낌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이라도 연장해서 특수수사단의 결과도 한번 받아 보시고 유가족을 대신해서 우리가 챙겨야 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희들보고 희생자 유가족 아바타가 돼서 활동하라 이런 지침을 첫날 내리신 것에 반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수 말씀은 양쪽 다 많이 들은 것 같고요. 개별적인 위원님 의견도 들은 것 같고 여야 간에 간사 간 협의를 좀 하고서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 협의 진행을 위해서 한 십여 분간 잠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주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의논을 했는데 기간 연장의 건은 양당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서 기간 연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조사결과 보고에 대해서도 사실 양당 합의는 없었습니다. 합의는 되지 않았습시다만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이것은 위원장 직권으로 29일이나 30일 날에 날짜를 하루 정해서 국토부로부터 보고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안건 처리 전에 유가족 대표께서 발언 요청을 하셨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 발언대에서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께 도와달라고 절규를 했습니다. 그 절규를 기억해 주시고 국정조사를 결정해 주신 국회에 유가족을 대표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정이 1년 넘게 멈춰 서 있던 진실을 다시 움직이게 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단순히 참사의 원인을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왜 참사가 발생했는지 또 무엇이 은폐되고 축소되었는지 그리고 국가가 재난 앞에서 유가족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드러내는 과정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거라는 가능성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둔덕에 대한 설치와 방치에 대해 책임자를 찾아내거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한 ‘둔덕이 없었다면’도 중요하지만 저희 유가족들은 둔덕에 부딪히지 않았더라면, 왜 둔덕에 부딪혔는지, 정비·기체 결함 가능성 그리고 조류 충돌 예방체계의 부실, 관제의 안전 기준과 경고시스템의 미비 이런 것들이 많이 밝혀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참사는 사고가 아니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진상규명을 책임져야 할 기관들의 무능이었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기본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핵심 조사를 외부 용역에 의존하며 자체 조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침묵하면 179명이 희생된 대형참사일지라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토록 더디게 흘러간다는 것……

오늘 채택되는 국정조사 보고서는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보고서는 진실을 향한 이정표이지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에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국토교통부의 책임 있는 인정과 사과 그리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제대로 된 이관과 철저한 조사, 경찰의 특별수사본부 설치의 전면 재조사, 그리고 수사·조사 과정에 유가족 참여 보장과 특별히 필요한 참사의 원본 데이터 공개까지 보고서에 담긴 모든 시정요구와 권고사항이 말로 끝나지 않도록 국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십시오. 다시는 잘못이 있는 피해자가 이런 자리에서 무릎을 꿇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해 주십시오.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약속해 주십시오.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국가가 진정으로 나선다면 반드시 밝힐 수 있습니다. 179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양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문회 증인 고발의 건

(15시09분)

○위원장 이양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문회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2일 청문회에서 위원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태도를 보이고 국정조사 중 본인 SNS에 우리 특위 위원을 조롱하는 글을 업로드한 이계희 교수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국회모욕의 죄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박재희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과 이윤종 안세기술회사 간 둔덕 재활용에 관하여 증언이 엇갈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간사 위원 간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문회 증인 고발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고발장 작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15시10분)

○위원장 이양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활동 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실에서 기관 보고, 현장 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있었던 위원님들의 주요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참사의 진상규명 내용과 관계 기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의원실에 회람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 대상 기관 공통으로 무안공항의 방위각 시설이 당초 설계와 달리 둔덕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변경된 점, 합동점검 과정에

서 지적이 있었음에도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개선공사 과정에서 오히려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보강공사가 이루어진 점 등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조류 활동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고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유가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만 결과보고서에 유가족 여러분들의 깊은 아픔과 모든 의견을 온전히 담기에는 한계가 있어 유가족 의견서는 별첨으로 첨부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결 이후 국토부가 제출하는 사실조사 보고서도 별첨으로 첨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결과보고서의 자구 수정 및 사실관계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사실조사 결과 보고는 1월 29일 또는 30일 중 위원장이 정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염태영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 한번……

○위원장 이양수 예, 하세요.

○염태영 위원 김은혜 간사님도 하시겠어요?

○위원장 이양수 양당 간사님, 한 말씀 하세요.

○염태영 위원 국정조사특위 여당 간사 염태영 위원입니다.

백칠십구 분의 희생자가 발생한 대형참사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어느 누구 하나 처벌받지 않았다고 하는 유가족들의 절절한 절규를 듣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했고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지난 1년간 유가족들께서 느끼셨을 분노와 좌절 그리고 국가에 대한 깊은 불신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 이양수 위원장님과 여야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 달 10일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이 늦었지만 오늘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의 특별수사단 출범을 공식화하게 됐습니다. 이번 특수단의 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정성학 단장은 최근까지 대구경찰청, 충남경찰청, 경남경찰청에서 수사부장을 역임하면서 주요 사건 수사를 총괄해 온 현장 경험, 수사 역량을 두루 갖춘 인물로 알고 있고, 또 유가족 측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캄보디아 현지 범죄단지를 급습해서 관련 피의자 전원을 검찰에 송치하는 이런 성과를 거둔 바도 있어서 기대가 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간 유가족들께서 가장 절실히 요구해 오셨던 말이 아닌 실제로 움직이는 수사에 적극적인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고 꼭 성과를 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후에도 국회에서 그 활동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보고를 받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사 발생 후 1년이 경과한 만큼 특수단의 수사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진행돼야 되고 동시에 최소한 월 1회 이상 유가족과 국회에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는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이달희 위원님 그리고 김성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께서 행안위원으로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김성희 위원님과 또 이광희 위원님께서서는 그런 역할을 맡아 주시기로 저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아울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소관을 국토교통부에서 총리실로 이관하는 법률안이 지난 15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일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경찰이 강제수사 또 총리실 산하에서 독립성을 갖추게 될 사고조사위원회의 전문적 조사가 함께 작동될 수 있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유가족들의 절절한 호소에 따른 국회의 응답이었습시다.

항철위가 실질적인 독립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위원장을 기존의 비상근 체계에서 참사 발생 시에는 상근으로 전환하는 등 그간 기관보고와 국정조사를 통해 지적되었던 부분을 보완해서 그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조사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유가족 측과 항철위가 이미 협의를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장님, 이번에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또 마침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우리 국정조사특위를 잘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정무위에서 총리실에서 진행되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역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위원장님께서 그런 것은 위원회 활동 과정 중에서 충분히 보여 주셨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오늘 유가족들께서 기대하는 게 또 그런 게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국토부가 엄정한 자체조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보고받을 수 있는 국토위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역시 국회와 유가족에게 공유되고 설명되어서 향후 본격 수사, 항철위 조사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국정조사특위 활동은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하나의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지만 기관보고, 청문회를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된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각각 소속된 상임위 차원에서 사고 원인 규명 또 재발 방지 대책 꼭 좀 챙겨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 국정조사특위 민주당 위원으로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향후에도 유가족협의회와 긴밀히 소통해서 이번 국정조사특위에서 지적된 여러 문제들이 원활하게 해결되고 수사와 조사에 제 속도를 내도록 제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 내에 국정조사 활동을 잘 이끌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또 야당 간사님 그리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정조사특위 구성에서 부터 특위 출범 시, 기관보고 시, 현장조사 시, 청문회 개최 시 매번 새벽에 무안에서 버스를 타고 출발해서 또 새벽에 돌아가시는 그 유가족들의 비통한 마음, 비애에 대해서도 큰 위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그동안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또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후의 국회의 모습에서 여러분들께, 유가족들께 최소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김유진 대표님과 유가족협의회 여러분들 그리고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유가족들께서 마지막까지 요청한 사항들 국회가 최대한 잘 챙겨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와 그리고 그동안의 어려움에 대해서 정말 마음으로 부터 깊이 사과와 위로를 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수 고생하셨습니다.

김은혜 간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김은혜 위원 염태영 간사님, 위낙 훌륭하신 간사님 계셔서 여야가 국정조사를 유족 뜻을 받들면서 이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국정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목요일이나 금요일 실시되는 국토부 사실조사를 보고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국정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상욱 김성희 김소희 김은혜 서천호 염태영 윤종오
이광희 이달희 이양수 이연희 전진숙 정성국 정준호 최혁진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원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전문위원 오세일
입법심의원 이유미